

“제국의 침공도인 한인들과 2세대”

(포니서 10기~1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전도도인'이다. 전도도는 단지 교회 포로클럽의 일부가 아닙니다. 전도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거역에 나누는 가장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그 반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나는 무엇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도는 특별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모든 이의 소명입니다.

한 통계를 따르면, 놀랍게도 98%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1년간 단 한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98%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안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며, 특히 미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나, 반면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이들 (한두개 무수한 무신론자들은 우리 곁에 있지만 접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이 이단과 타종교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단순한 열정을 넘어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교 무수한 미국 내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뉴욕의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은 적 없는 가정적인 미전도도 종착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성경은 행동이나 용리보다,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한 생명을 세상에 증거하는 매개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묻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하기를 어떻게 믿으리오, 전하는 이 없어야겠지요?" 전파해오면 듣고, 들어야만 믿으며,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을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 준비된 전도도 한 장 양식을 통한 복음 제시, 언어 장벽을 넘는 열매이며 도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님, 오늘 양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것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생생하게 전하게 인도해줍니다. 제기 할 때, 주우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을 자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신론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미약이 합법화되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잘못된 상과복을 받고 있으며, 복음을 알지 못한 엘리트들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이 약이기도 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고,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록과 은 많은데 전도도는 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 할 때입니다. 단 한 번의 전도도 누군가에게 권을 아끼지 마십시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이 권위자들 안에서 열어가기 위해 세워도 우리가 먼저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도는 결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은 우리가, 받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 세대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응답하십시오.

“사람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2025년 포어

“내 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34)

사랑의 5대 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전회		교회학교	
세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벌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세나라 한국교회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수요요방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유아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유치부		창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등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고등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리브미션	박영애 전도사 (718)737-1643	5, 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년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허스패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아회중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넬 바우넷 목사 (201)927-0220
행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디시 토틀름 목사 (646)467-2675
양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가족부	최순성 목사(성) 박수진 전도사(부)	시내지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신앙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체 기도교(▶) (담당워너 캐이틀 487) /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만양송)
토요일 오전 11시(제향송)

2025년 3월 23일

1부 예배 8:00am |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이재환 목사
인도: 김성준 목사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신앙교백
사도신경

*기원
Invocation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2편 '시편(Psalms) 19편'

기도
박이솔 집사

*신앙교백
Creed
사도신경

성경봉독
히브리서 11:7-22

찬송
Hymn
제93장(9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Jesus is the World to Me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기도
홍성로 찬로 (Elder Sung Ho Hong)

성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
시인의 믿음"
최순성 목사

*봉헌
Opening
새기진장(3장) "의생명의 소리"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주님 약속하신 믿음
위에 서오 신실하신 주"
최순성 목사

찬송
Hymn
새기진장(3장) "의생명의 소리"
"Take My Life and Let It Be"

속도
최순성 목사

*찬송
Hymn
새기진장(3장) "의생명의 소리"
"Take My Life and Let It Be"

속도
최순성 목사

*기도
Benediction
공동체 속삭
Affirmations

속도
최순성 목사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십시오 / Stand if able)